의성 이어 고령서도 구제역

metro
메트로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제3024호 www.metroseoul.co.kr

대성 日투어 2년연속 10만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산다

정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8월부터 시행될 듯

평소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중국인 A씨는 주인공이 입고 나온 스타일이라면 뭐든지 따라하고 싶은 20대다. 최근 한국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푹 빠진 그는 한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주인공 천송이가 입고 나온 코트를 구매하려다 '액티브X' 등 깔아야 하는 인터넷 환경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안내에 결국 구매를 포기하고 말았다.

A씨가 천송이 코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합동브리핑을 열고 A씨 등의 소비자가 구매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전자 금융경쟁력-실효성 지적 잇따라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 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온라인 간편 결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간편결제란 전자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한 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이후에는 간단한 인증절차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이를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게다가 30만원 이상 결제 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더구나 간편 결제를 제공하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가 국내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어 국내 전자금융업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판 알리페이 다오나?

한국판 알리페이 첫단계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관련 약관 개정을 내세웠다.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갖춘 PG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해 페이팔이나 위리페이와 같이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개발·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일부 카드사와 PG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카드 정보 공유 등의 문제로 크게 상용화되지 못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카드사와 PG업계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정보를 보유한 PG는 검사 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A씨는 단 한번의 클릭만으로 '천송이 코트'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반기 중 카드사와 PG 등 관련업계 간 계류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결제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30만원 이상 결제 시 관행처럼 여기던 공인인증서 요구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위한 쇼핑몰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액티브X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지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도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non-액티브X 방식은 9월부터 보급·확산되며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밖에도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외국인전용 쇼핑몰인 '케이몰24'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는 관련 업계와 힘을 보아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강요와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란기자 alive0202@metroseoul.co.kr

코스피 연중 최고치 28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14.96포인트(0.74%) 오른 2048.81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2일 이후 7개월여만에 장중 한 때 205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해외 여행 때 원화 결제하면 '손해'

수수료 10% 더 지불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많아진 가운데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나 미국 달러 등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구매(직구) 할 때도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해외 현지와 해외사이트에서 비자·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할 경우, 미국 달러나 현지화폐로 결제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돼 신용카드 결제 때 약 10%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화결제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짜 서비스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해 소비자에게 손해다.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꾸어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거래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최소 2.2%, 최대 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되었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55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로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고 언어 장벽과 계산이 복잡해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담아 두었다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현지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것을 권고했다.

/장경희기자 jkh

한·태국 외교장관 회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시하삭 푸앙껫께우(왼쪽) 태국 외교부 차관대리가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태국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엄마·양회정 부인 자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 걸어… "양씨는 자수 안해"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여)씨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부인 유희자(52)씨가 28일 검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지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와 자수 의사를 밝힌데 이어 오전 8시30분께 인천지검으로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

김엄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기획한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이 5월 27일 검찰에 체포되자 이후부터 순천 지역 도피조를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평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김씨가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남편인 양씨를 도와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여 일 동안 유씨의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수사 동향에 대해 알려주며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김씨와 유씨가 자수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자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김씨와 유씨 등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다혜기자 y...@metroseoul.co.kr

원클릭을 위한 선결과제는?

기자 수첩
백아란 <경제산업부 기자>

"눈을 깜박이거나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인증하고 결제도 하는 거죠. 금융산업에 대중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그 순기능과 발전 가능성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체인식 기술의 금융산업부문 활용 가능성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점치며 이렇게 밝혔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천송이 코트를 더욱 쉽게 살 수 있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액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와 생체정보 등 다양한 공인전자서명 기술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국내외 국민 누구나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물 안 개구리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의 규제 완화를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알리페이나 카카오 등 거대 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세계적인 전자결제 흐름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우물 밖만 벗어나기 위해 기본을 무시할 수는 없다. 결제 인증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투자비용과 보안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주체, 그리고 재발 방안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물 밖으로 뛰어나간 개구리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간사 회동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가 28일 국회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재보선 수도권 역전극 '온힘'

반바지 유세vs세월호법까지 '투트랙'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28일 각각 경기도 평택과 김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이날 '반바지' 유세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전원은 오전 평택을 유의동 후보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흰 반바지 반소매 티셔츠와 빨간 카우보이 모자, 빨간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7·30 재보궐선거 평택을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가 28일 평택시 안중리 5일장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서울 동작을과 수원벨트에서 이뤄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본격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효과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 동작을 등에서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최근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동작을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며 우려감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도권 총공세와 세월호 특별법 관철이라는 '양대 화두'로 막판 전열을 정비했다.

대부분 열세로 분류되던 수도권 6곳의 판세가 최근 경합으로 바뀌면서 해당 선거 현장에 집중 포격을 가하고, 세월호 참사 문제를 겨냥한 당 차원의 공중전을 펼침으로써 지지층 결집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남은 선거기간 소속 의원들을 '선거 지원팀'과 '협상 독려팀'으로 나눠 재보선 유세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라는 '투트랙'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경찰청장 "검찰과 수사공조 안 하면 문책"

● 이성한 경찰청장은 28일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찰 지휘부 특별회의'에서 검경 수사 공조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적에 눈이 멀어 기관 간 협조가 안 될 때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2배 이상 인상 검토… 내달 입법예고

● 정부가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방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북, EMP탄 아직 개발하지 못했을 것"

●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EMP(전자기파)탄 개발을 도왔다는 미국 전직 관리의 증언에 대해 "EMP탄 기술 자체가 선진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것을 개발할만한 수준은 아직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각국의 개발 추세를 고려할 때 북한도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20년은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보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 앞서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일제히 제출했다.

/윤다혜기자

"구조 기다리다 파도 덮쳐"

세월호 생존 학생들 안산서 첫 증인신문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재판에서 생존학생들은 사고 당시 선실에서 빠져나와 비상구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구조를 기다렸지만 승무원이나 해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단원고 생존학생 6명이 처음 증인으로 나서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세월호 4층 선미 쪽 왼편 SP1 선실에 머물던 A양은 "선실에서 나와보니 비상구로 향하는 복도에 친구들 30여명이 줄을 선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구조대가 오지 않아 한명씩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내가 뛰어든 뒤 복도가 비상구를 덮쳐 나머지 10여명의 친구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안산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28일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후 나오고 있다 /뉴시스

B양은 "손 닿으면 닿을 거리에 있던 고무보트에 탄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올리기만 했다"며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증인으로 출석한 학생들은 "특히 단원고 학생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방송이 반복됐다"고 입을 모았다.

증언을 마칠 때에는 재판부를 향해 승객을 버리고 먼저 배에서 탈출한 승무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9일 오전부터 다른 생존 학생 1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송다혜기자 sdh@metroseoul.co.kr

구제역 확산되나… 경북 고령서도 발생

구제역이 지난 24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데 이어 나흘만에 인근 고령에서도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북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도는 지난 27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농장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9개 돼지우리에서 2015두를 키우고 있는 이 농장에서는 돼지 30여 마리가 발굽이 벗겨지고 충혈이 생기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였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의 돼지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소각처분에 들어갔다.

증상이 나타난 3개 우리의 30마리가 우선 대상이다. 나머지 돼지는 임상관찰, 혈청검사 등을 통해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구제역은 지난 24일 경북 의성의 돼지 농장에서 2011년 4월 21일 이후 3년3개월만에 발생했으며, 이 농장 내 6개 돈사의 돼지 1500마리 중 감염 또는 감염의심 돼지 692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연우기자 cyclone@

구더기로 유병언 사망 시각 푼다

경찰 CSI 정밀조사 나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시각과 사인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CSI)가 법곤충학을 통해 유병언 사망 사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CSI는 27일부터 이틀간 유씨의 사망 현장과 시신에서 파리 유충의 번데기 탈피각과 구더기를 채취하고, 현장의 습도와 온도 등 주변 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CSI는 이를 통해 논란이 되는 유씨의 사망 시점을 유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유씨가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5월 25일 이후 시신이 발견된 6월 12일까지 유씨의 행적이 묘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곤충학의 역할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윤다혜기자

진잠향교 충효교실 28일 대전 유성구 진잠향교에서 열린 여름방학 충효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한자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폭염 한달간 지속"

재난안전연구원 "사망 1만명… 살인 사건 빈도 증가 가능성도"

한여름 더위가 길어지는 추세가 이어져 폭염이 한 달간 지속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위때문에 사망자가 1만명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폭염 현상이 장기화하면 기차 운행 중단 등 교통 대란과 함께 살인 사건 빈도가 2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20년 여름철에 폭염이 한 달간 계속되는 상황을 가정해 그 피해를 예측한 '퓨처 세이프티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연속 이어질 때 발령된다. 현재 연평균 폭염 발생일은 10일 정도이지만 2050년에는 폭염 일수가 현재의 3~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마른 장마'와 장마 후 한여름 폭염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로 볼 때 2020년께 폭염주의보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세균성 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 문제와 사건 사고에 따른 추가 사망자가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폭염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냉방기기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무전력 냉방 수단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 더위 피해를 줄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갈등 소송전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온 강남구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구룡마을은 다음달 2일 구역 실효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부 환지 방식(토지보상) 도입을,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 방식(현금보상)을 각자 주장하고 있어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상태다.

강남구는 28일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구룡마을 대토지주의 1400억원 개발 자금 조성과 사용 경위, 광범위한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고발 대상 공무원들이 공원부지 4800여㎡를 부당하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해줬으며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이 있었음에도 폐지된 시설이라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환지규모를 기존 18% 가량에서 2~5%로 축소한 수정계획안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라며 강남구가 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경기 안산동산고 학부모 160여명(경찰 추산)이 2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재인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 '짬짜미'

8개 업체 적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50억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에 참여한 전선회사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력선 입찰 과정에서 중국산 자재 전력선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거나 성능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담합한 혐의로 전선회사 8곳의 임직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일진전기·LS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코람케이블·TCT·KTC·가온전선 등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황모(43)씨와 성능검사 조작에 가담한 시험기관 연구원 박모(48)씨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전선회사는 투찰담합인 지난 5월 14일 서로 직원을 보내 교차 감시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했다. 납품물량을 분배생산하거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7~13%의 수수료만을 챙기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했다.

특히 일진전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35억원 상당의 자재 중국산 조가선(주 전력선 지탱 및 전력공급 보조역할)을 수입, 자가 제품인 것처럼 공단에 납품해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납품자재 샘플을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성능검사의 일종인 '불기분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일부 보고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다혜기자 yahdh

다퉜다고 5세 어린이들 서로 때리게 해

부산 대형유치원 여교사 4명, 아동 16명 지속 학대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 대형 유치원에서 여교사 4명이 45일 동안 다섯 살배기 어린이 16명을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어시장과 원장은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건을 축소하려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세 반 어린이 16명을 25차례 학대한 혐의로 모 유치원의 A(30·여) 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23)씨 등 여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게 하고 약을 늦게 주는 등 20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나머지 20대 여교사 3명은 1~2차례 어린이 1~5명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얼굴을 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폭죽파편 맞은 초등생에 5천만원 배상"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폭죽 파편에 눈을 다친 초등학생에게 단체 측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8일 A(13)군과 A군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련회를 개최한 한국청소년연맹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폭죽을 터뜨리는 곳과 학생들 사이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다혜기자

한방 삼계탕 나눔 자원봉사

서울시 도봉구는 지난 21일 코레일 수도권 동부본부 사회봉사단이 방학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사랑의 한방 삼계탕 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봉사에서 홀몸 어르신 등 25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주 정차 단속 청소년 모집

서울시 강서구는 지역 청소년 40명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체험단은 8월5일부터 19일까지 하루 8명씩(2명 4개조) 단속 공무원과 함께 주차 단속에 나선다.

성동구, '도서관 탐험' 운영

서울시 성동구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우리동네 구석구석 도서관 탐험'을 추진한다.

28일부터 8월29일까지 진행되며 '도서관 지도'를 따라 미션을 수행, 스탬프를 찍어 제출하면 도서관왕 및 구 상징 이미지 배지를 받을 수 있다.

metro Russia

ьптор разгадал
ку Моны Лизы

metro Brazil

nto após a Copa

월드컵 끝나니 다시 치안 불안

월드컵 이후 브라질의 치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브라질 남부 도시인 쿠리치바의 주민들은 최근 길에 배치된 병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월드컵을 대비해 증원 배치된 병력이 원대복귀했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월드컵 동안 범죄가 없던 것도 아니다. 그래도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지만 이제는 대놓고 범죄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게 됐다"며 불평했다.

metro France

OS - Invasion de rats sur les
ses de Louvre !

루브르박물관 쥐떼 관광객 경악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인근에서 쥐떼가 발견돼 관광객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매일 약 30여마리의 쥐가 루브르 인근 정원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루브르 측은 "다리 공사 중이고 강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쥐 떼가 큰 편이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카루젤 정원에서 쥐떼가 자주 출현된다"며 파리위생서비스팀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모나리자와 부처 미소는 닮은꼴?

수십 년간 불상 만든 러시아 조각가 주장 눈길…"달라이라마 만난 뒤 확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가 부처의 미소를 바탕으로 그려졌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조각가가 있다.

수십 년간 불상 조각을 해온 블라디미르 바시킨(74).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동양 문화와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았다"며 "다빈치의 대표작인 모나리자의 미소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70년대 내가 모나리자를 처음 봤을때는 나도 모르게 두 팔을 뻗은 채 모나리자 당신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바시킨은 "다빈치의 집에는 당대 부호들이 많이 드나들었다"며 "그들이 가지고 온 값비싼 물건 중에는 부처상이나 부처의 그림과 같은 동양의 물건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 때문에 모나리자의 미소가 동양 예술의 영향을 받게 됐으며 부처의 온화한 미소를 닮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시킨은 모나리자를 처음 본 뒤 30년이 지나서야 신비한 미소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밝혔다. 90년대 말 달라이라마를 만난 직후 모나리자 그림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 미소가 부처의 미소와 닮았다는 설명이다.

바시킨은 "구소련 시절에는 블라디미르 레닌 조각상을 만들기에 바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내가 원하는 부처상을 맘껏 조각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그는 "부처상을 만들 때마다 내 이론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이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불교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바시킨은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온화함, 믿음, 고요함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나리자의 미소가 전 세계 인구를 매료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꿈에서라도 다빈치를 만나게 되면 어째서 모나리자에게 부처의 미소를 선물했는지 꼭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와 부처의 미소를 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블라나 보브로바 기자 · 정리=조선미 기자

metro Mexico

Adamás da mano l
stulkean lus calula

스마트폰 범죄 기승 개인정보 유출 우려

멕시코에서 값비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노리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도난은 사생활 관련 정보까지 통째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멕시코시티 시민안전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한 소매치기의 40%는 스마트폰 절도였다. 스마트폰 절도 신고는 지난해 한 해만 3600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9.6개의 스마트폰이 길거리에서 사라진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사례도 1700건을 넘어섰다.

보안 전문 회사 시만텍은 "절도로 스마트폰 안에 있는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것이 특히 문제"라며 "비밀번호를 항상 걸어놓거나 원거리 모넷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다. 업체 측은 멕시코시티와 몬테레이, 과달라하라의 공공장소에 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인 없는 휴대전화 30대를 놔두고 7일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업계 관계자는 "거의 모든 휴대전화에서 정보를 캐내기 위한 시민의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5분정도 짧은 시간만 시도해 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평균 35분간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사진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각각 80%)로 나타났다. 47%는 e-메일을 얻기 위해 접근했고, 은행 계좌를 엿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37%에 달했다.

/제시카 카스테호스 기자 · 정리=조선미 기자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코스닥
2048.81 (+14.96)	552.98 (-9.80)

금리	환율
2.51 (+0.02)	1026.30 (+1.00)

코스피 연중 최고점 또 경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 장중 2050선 탈환

코스피지수가 2040선 후반으로 연중 최고 종가를 또 다시 경신했다. 장중에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2060선을 7개월 만에 넘어서면서 박스권 탈출 기대감을 키웠다.

28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96(0.74%) 상승한 2048.81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이틀째 올라 장초반 204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장중 2050선까지 탈환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060선을 찍은 것은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처음이다.

중국 HSBC제조업지수 등 국내외 경제지표가 좋은 수치를 내놨고 지난 주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가계 등에 41조원을 푸는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다만 지수는 장 막판 상승폭을 줄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2050선의 종가를 기록하는 기쁨은 다음으로 넘겼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20억원, 1251억원어치 사들였고 개인은 266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혼조를 보였다.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 정책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내수주 중심으로는 강세를 보였다.

은행(4.23%), 증권(3.87%), 금융(3.11%), 보험(1.78%)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전기가스(5%), 통신(2.98%) 등이 상승했다.

반면 의료정밀(-1.95%), 비금속광물(-1.66%), 섬유의복(-1.46%) 등이 1%대 낙폭을 보이고 종이목재, 의약품, 음식료, 전기전자 등도 소폭 하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대표적인 내수주인 한국전력이 6.26% 급등했고 KT&G(0.63%), SK텔레콤(3.81%) 등도 상승했다.

신한지주(3.27%), KB금융(5.03%), 하나금융지주(3.66%), 우리금융(5.41%), 기업은행(6.25%) 등 금융주 강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2.86%), 롯데쇼핑(2.61%), LG생활건강(0.83%) 등 내수주들이 일제히 올랐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22% 상승했다.

반면 자동차주 중에서는 현대차(-0.22%)와 현대모비스(-0.18%)가 하락한 가운데 기아차만 0.53% 소폭 올랐다. IT·전자업계도 약세를 보여 SK하이닉스가 2% 빠졌고 LG전자(-0.92%), LG디스플레이(-4.49%), 삼성SDI(-2.79%) 등의 마이너스 흐름을 기록했다.

코스피 거래량은 3억4324만주, 거래대금은 4조5440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80(1.74%) 내린 552.98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8억원, 526억원어치 팔아치웠고 개인이 1161억원 순매수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0원 상승한 1026.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발목을 잡던 펀드 환매물량이 상당히 해소되면서 향후 박스권 돌파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망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나타나며 세계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며 "여기에 기관의 매수세까지 더해져 앞으로도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뉴스&뉴스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강의'

장하준 교수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펴낸 '이코노믹스, 유저스 가이드(Economics: The User's Guide)'를 번역한 것으로 대중을 위한 경제학 입문서이다. /연합뉴스

구직자 허위정보 1위 '경력'

● 구직자 이력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허위 정보는 '경력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포트폴리오 SNS 웰던두는 기업 채용담당자 592명을 대상으로 '채용 프로세스 현황'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채용담당자의 25.3%는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허위 정보 게재로 입사를 취소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입사 취소를 부른 지원자의 허위 정보 1위는 경력사항 이 응답률 3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력(28.0%)', '어학점수(26.0%)' 등이 거론됐다. /정윤희기자 jyh@

해외이사물품 기준 완화

● 관세청이 국민의 변화된 주거환경을 반영하고 업무처리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사 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전면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그간 허용되지 않던 화면 대각길이가 160cm를 초과하는 텔레비전과 냉장고, 그랜드피아노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이사할 때 들여올 수 있게 됐다. /김도식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빌딩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상무·편집인	김종혁
편집제작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8
독자센터	02)721-9881

2005년 5월 24일 창간 / 일간신문 서울특별시 가00254

"내가 1등" 28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수박 빨리먹기 대회'에 참가한 직원들이 열음위에 앉아 수박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창업 37% "먹고살기 위해"

주요국 중 최고 수준

우리나라 전체 창업자 10명 중 4명은 먹고 살기 위해 창업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저부가가치형 창업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정부가 내세우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창업 활성화 정책은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8일 글로벌 기업가활동 모니터(GEM)가 펴낸 '글로벌 리포트 2013'을 살펴보면 한국의 42개월 미만 초기 창업 가운데 생계형 창업 비중은 36.5%에 달한다. 이는 주요 선진국중 최고 수준이다.

스페인(29.2%), 대만(28.7%), 일본(25%), 그리스(23.5%), 체코(22.7%), 포르투갈(21.4%), 미국(21.2%) 등이 선진국치고는 비교적 높은 20%대의 생계형 창업 비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적다. 독일(18.7%), 프랑스(15.7%) 등 서유럽국가 대부분은 10%대로 비교적 건실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했다. 우리가 창조경제의 모델로 삼는 이스라엘도 17.4%에 불과했다.

특히 탄탄한 경제와 복지제도를 자랑하는 노르웨이(4%), 스위스(7.5%), 네덜란드(8%), 스웨덴(9.7%) 등은 한자릿수 지표로 가장 양호한 국가군에 속했다.

반면 소득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회추구형 창업은 우리나라가 5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76%로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63.8%), 스위스(67.2%), 네덜란드(67.1%), 캐나다(66.9%) 등이 뒤를 이었다. '20년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59.6%에 달했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기존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생계유지의 마지막 수단으로 요식업 등의 저부가가치 서비스 창업에 나서고 있다"며 "젊은 예비 창업가뿐만 아니라 조기 퇴직자의 재교육에도 신경쓰는 창업정책이 뒷받침돼야 생계형 창업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대구고·연대 상대

최 부총리 '금맥' 급부상

금융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졸업한 대구고, 연세대 상대 인맥이 이른바 '금맥'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의 대구고 인맥은 폭넓게 포진해 있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최 부총리의 대구고 6년 선배다. 이 회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이 회장은 1977년 상업은행(우리은행의 전신)에 입행한 뒤 우리은행 부행장과 수석 부행장을 거친 뒤 은행장까지 오른 정통 뱅커 출신이다.

지난해 말 41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자금운용 최고책임자(CIO)에 선임된 홍완선 자금운용단장은 대구고 15회 동기다. 증권가에서는 전병조 KB투자증권 IB부문 부사장이 최 부총리의 대구고 후배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연세대 인맥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금융권 대표적인 연대 인맥으로는 지난 정부때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임종룡 NH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여성 최초로 행장 자리에 오른 권선주 기업은행 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이 꼽히고 있다.

/유선미기자 seun@

ING생명 어린이 경제교실 ING생명은 서울 강남구 역삼문화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경제교실을 개최했다 /ING생명 제공

하반기 ETF 판도 변할까

철강·은행업종 강세··"인버스 지고 레버리지 뜬다"

제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하반기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지향어 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ETF에는 기초자산으로 담은 개별 종목의 시장가치가 바로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 기대감에 수혜주로 떠오른 업종 관련 ETF가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28일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기 경제팀이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25일 국내 ETF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하루 동안 1.92% 오른 'ARIRANG 철강금속'으로 집계됐다.

동양철관,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 등의 종목을 담고 있는 이 상품은 상반기 평균 수익률은 6.93%로 상위 25위에 머물렀다가 중국의 제조업지수 호조 등에 탄력을 받았다.

홍진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철강업종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에 있는 가운데 분기 실적 호조와 철강 원재료 가격 하락 등의 호재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금융 관련 ETF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KODEX 은행'은 상반기 수익률 135위(-6.63%)에서 지난 25일 1.74%로 2위에 올랐다.

이 ETF가 담고 있는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이 정책 발표 후 일제히 강세를 거듭하면서 수익률이 크게 뛰었다.

시장의 방향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발표 후 레버리지 ETF에 수요가 몰린 점이 눈에 띈다. 인버스에 자금이 쏠렸던 상반기와 대조적인 흐름이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일 때는 레버리지 ETF가, 약세장인 때는 인버스 ETF의 수요가 많다.

상반기에 'KODEX 인버스'에 21억9800만원이 유입되며 상위 3위를 차지한 반면, 레버리지 관련 ETF 수요는 미미하거나 자금 유출을 보였다.

반면 하반기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25일 하루간 수익률을 보면 레버리지 ETF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레버리지 거래가 활성화됐다는 의미다.

이 기간 'KStar 일본레버리지 ETF(H)'와 'KINDEX 일본레버리지(H)'는 각각 1.69%(3위), 1.61%(6위) 오르며 수익률 상위에 오른 반면, 'KODEX 인버스'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섰다.

문남중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금융, 건설 등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 수혜주로 떠올랐다"며 "일단 국내 시장만 놓고 보면 시장 자체는 상반기보다 좋을 것으로 보이며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투자하는 ETF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은경기자 fusion1@metroseoul.co.kr

은행권 '4강 체제' 무너지나

신한은행 수익 독보적 1위

은행권에서 신한은행의 독주가 눈에 띄고 있다. 올 상반기 유일하게 조 단위 영업이익을 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4강 체제'가 무너지고, 신한은행의 독보적 1위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7조6700억원의 매출액에 영업이익 1조400억원을 올렸다.

같은 기간에 국민은행의 매출액은 8조1800억원으로 신한은행보다 많았다. 그러나 영업익은 6700억원으로 신한은행의 64%에 불과했다. 하나은행도 매출액에서는 신한은행과 비슷한 7조4300억원을 잠정 신고했지만 영업익은 약 절반 수준인 5700억원에 그쳤다. 외환은행은 5조2400억원 매출에 영업익은 4000억원이다. 특히 6월에는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6월 흑자가 200억원대로 적었는데 이는 다른 은행보다 반기말 상각 채권이 많은 탓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직 상반기 실적을 집계하지 못한 우리은행은 1분기에 4조3100억원 매출액에 4300억원 영업익을 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섰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올 들어 매출액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5000억원(16.3%) 줄었음에도 영업익은 1900억원(22.3%) 늘었다.

임직원이나 점포 수와 비교한 생산성을 따지면 은행 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진다. 임직원 1만4602명, 점포 895개를 보유한 신한은행은 상반기에 1인당 영업익 7114만원, 점포 1개당 영업익 11억6000만원을 냈다. 임직원 2만1563명에 점포가 1157개인 국민은행은 1인당 영업익 3106만원, 점포당 영업익 5억8000만원으로 각각 신한은행의 절반도 안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비용을 줄이고 우량 대출자산을 많이 확보해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름상품 할인판매 시작 28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최대 50% 할인판매에 들어갈 여름맞이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31일부터 '2014 여름 시즌오프' 행사에 들어가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침구, 의류, 속옷 등을 50% 인하한 가격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가계저축 비중 기업의 22%

국내 총저축에서 가계 저축 비중이 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저축액은 89조원으로 전체(397조3600억원)의 22.4%를 차지했다.

비금융기업의 저축액은 281조1000억원으로 총저축액의 70.7%에 육박했다. 금융기관(27조2000억원)의 비중은 6.9%였다.

가계·비영리단체 저축 비중은 1991년 62.3%로 비금융 기업(33.2%)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1998년(67.1%)을 정점으로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가계 저축 비중은 1999년 51.2%로 하락한 후 2000년(40.2%) 처음으로 기업(50.0%)에 역전을 허용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 저축 비중은 2002년 16.0%까지 주저앉았고, 이후에도 20~30%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이 총저축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0년 50%대에 오른 이후 50%대 후반과 60%대에서 오르내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총저축에서 가계와 기업이 차지하는 위치가 뒤바뀐 것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은지기자

공공부분 부담액 늘고 혜택 줄고

2030세대 평생 1억원 손해

정부의 재정, 공공 연금, 보험 지출 구조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현재의 20~30대 연령층은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을 초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형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 3명은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공공부문 순부담액은 2011년 기준 1인당 만 20~25세 미만 연령층 1억1000만원, 30~35세 미만은 1억1200만원, 40~50세 미만은 9700만원, 50~55세 미만은 3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율(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이미 지난 2010년 15.2%로 일본의 1985년과 같은 수준에 올랐다.

15년 뒤인 오는 2029년에는 36.8%로 일본의 2010년과 같은 수준이 되며 2040년 57.2%, 2060년 80.6% 등으로 상승한다.

보고서는 "현 추세라면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지기자

연령대별 공공지출 순부담액

알뜰폰협회 2기 다음달 본격 가동

이동형 신임 회장 선임·KTIS·미디어로그 협회 합류 "글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이하 알뜰폰협회)가 출범 1년 만에 이동형(사진) 아이즈비전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사진도 새로 꾸리며 하반기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기업·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MVNO협회와 중소기업 위주의 중소통신사업자협회로 양분돼 있었다. 이후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 정책과 알뜰폰 시장 홍보 효과를 위해 한 데 묶자 통합협회를 출범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협회는 김홍철(프리텔레콤 대표) 회장의 임기가 만료돼 이동형 아이즈비전 대표를 2대 회장에 선임했다. 부회장엔 신동경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대표를 뽑았다. 기존 알뜰폰협회 부회장이던 문성광 에넥스텔레콤 대표는 유임됐다. 이동형 신임 회장은 다음달 1일 취임, 알뜰폰협회를 이끌게 된다.

이사진도 회장·부회장을 제외하고 김종렬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 총괄 상무, 유기만 머천드코리아 대표, 김홍철 프리텔레콤 대표, 김도균 에버그린모바일 대표 등으로 새롭게 꾸렸다.

알뜰폰협회 1기에서 이사를 맡고 있던 서성원 SK텔링크 사장은 이사진에서 물러났다.

알뜰폰협회 2기 회원사는 총 17개 기업이 전수를 했다. 협회 창립 당시 16개 기업이었으나 하반에 1개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이동통신3사 계열사 중에선 SK텔링크만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최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T 자회사인 KTIS와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는 신청하지 않았다. 양사 모두 협회 참여를 미뤘다.

미디어로그 관계자는 "아직까진 알뜰폰협회 가입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만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협회에 가입할지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은 최근 이통3사가 자회사를 통해 시장에 합류하고 대기업 계열사도 잇따라 뛰어드는 등 가파른 성장속에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통3사와 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 자금력에서 밀리는 중소형 알뜰폰 사업자는 생존을 놓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통신시장의 자금력에서 밀린다는 것은 그만큼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알뜰폰협회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중소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이통3사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과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최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3M 청소년 사이언스 캠프 28일 충남 아산시 도고 교원연수원에서 열린 '3M 청소년 사이언스 캠프'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로봇 자동차로 미로 탈출 경기를 벌이고 있다. /한국쓰리엠 제공

자동차 업체, 수출가격 높아졌다

원화강세 따라 중·대형·고급차 해외판매 증가 원인

현대차·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출단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등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중·대형차와 고급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을 늘린 것이 원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8일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올 상반기 수출량은 159만7964대, 수출액은 236억818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7%와 4.6% 상승했다. 5개사의 평균 자동차 수출단가는 1만4800 달러로 지난해 1만4300 달러보다 3.9% 상승했다.

업체별 평균 수출단가를 보면 현대차가 1만6200 달러, 기아차 1만3700 달러, 한국GM 1만3700 달러, 쌍용차 1만6900 달러, 르노삼성이 1만6400 달러였다.

현대차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0.9% 상승한 것을 비롯해 기아차(4.7%), 한국GM(7.6%), 쌍용차(2.6%), 르노삼성(4.7%) 등 5개 완성차업체의 평균 수출단가는 모두 상승했다.

현대차의 대형세단 에쿠스는 올 상반기 2583대가 수출돼 10.6% 늘었고, 기아차의 대형세단 K9의 수출량도 2895대로 87.6% 증가했다. 기아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도 9만4757대가 수출돼 57.7%의 성장세를 보였다.

5개사 중 가장 높은 수출단가 상승률을 보인 업체는 한국GM이다. 올란도·트랙스와 같은 레저용 차량(RV)은 14만6417대가 수출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 늘었다.

반면 경차인 스파크와 소형차인 아베오, 준중형차인 크루즈 등의 수출량은 작년 상반기보다 각각 24.8%, 54.5%, 67.8% 감소했다. /기수정기자 ksoo@

효성, 2020년까지 1조5천억 투자

"글로벌 화학기업 도약해 시장판도 흔들 것"

효성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효성은 세계 최초로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인 폴리케톤을 개발한데 이어, 최근 울산시 남구 효성 용연2공장에 1250억원을 들여 연산 5만톤 규모의 공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효성은 7월 말부터 2단계 공사 프로세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투자를 결정한 이후, 12월부터 폴리케톤 상용공장 건설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공장 건립을 준비해 왔다. 공정설계 및 반응기, 압축기, 건조기 등 주요 설비 발주를 완료했다. 이후 고압가스 안전관리체계(SMS) 인허가를 받고 공장 부지 기초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7월 중순까지 건설공사를 위한 준비단계를 끝냈다.

당초 내년 6월말까지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안정적인 투자자금 조달과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정을 대폭 단축해 내년 3월 말까지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금액은 산업은행 대출금과 자체 보유금 등으로 조달했다.

효성은 현재 건립 중인 5만톤 규모의 폴리케톤 공장이 완공되는 대로 영업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추가 5만톤 증설 등 2020년까지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설계·건설인력 등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효성이 울산시에 건립중인 폴리케톤 공장부지 전경(위)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폴리케톤 제품 /효성 제공

부품·조립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고용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0년까지 폴리케톤 소재 개발 인력과 부품생산 인력 등 산업전반에 걸쳐 8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폴리케톤으로 인한 전후방 산업효과도 1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케톤이 적용될 수 있는 세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은 2015년 66조원 규모로 연간 5%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은 장기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현상 부사장은 "폴리케톤은 탄소섬유, 스판덱스, 아라미드 등과 함께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신소재로 기술과 품질을 중시하는 효성이 글로벌 화학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꽃할배' 위한 요금제는 어디 없나요?

이동3사 생색내기 그쳐…가입조건·규약 제한

장년층도 스마트폰 시대다. 연기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최신 스마트폰이 협찬으로 등장하면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어르신들도 늘어났다.

이동통신 3사는 만 65세 이상 고객을 겨냥한 전용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이통 3사는 노인 전용 요금제에 팔연적이 적다는 여론 비판에 시달려 혜택 강화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 대상 요금제는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이다. 스마트폰 사용 노인층은 늘어나지만 이를 지원할 최신 요금제는 드물고 가입 조건이나 규약이 제한된 한계가 있다.

28일 현재 SK텔레콤은 '뉴실버 요금제'와 '실버스마트15'라는 노년층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뉴실버 요금제는 통화량이 적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음성통화 30분, 영상통화 30분, 문자 60건을 기본 제공한다. 통화료는 지정번호 1회선에 한해 10%를 할인받는다. 월 이용료는 부가세 포함 9900원이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고객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실버스마트15는 이동전화와 데이터를 소량 사용하는 실버 세대를 겨냥했다. 월 이용료 1만6500원으로 음성통화 50분, 영상통화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50MB가 기본 제공된다. 통화료는 지정번호 2회선에 대해 20% 할인된다.

KT는 만 65세 이상 고객 대상의 LTE 요금제 4개를 운영 중이다. 월 이용료는 부가세 포함 1만6500원부터 3만250원까지다. 총 제공량에서 음성·영상통화, 문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LTE 골든150 요금제는 지정번호 2회선, LTE 골든 275는 3회선까지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KT에는 '골든스마트 150'과 '골든스마트 275'란 3G용 어르신 요금제도 서비스 중이다.

LG유플러스는 '뉴실버 5'와 '실버스마트'란 실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두 실버 요금제 모두 2개 지정번호에 대해 국내 음성통화료 20%를 할인하며, 실버 자감이 란 고객 위치 정보 알림 기능이 서비스된다. 뉴실버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이 없는 통화량 위주의 고객 대상으로 부가세 포함 월이용료 9900원이다. 음성 60분과 영상 60분, 문자 50건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실버 스마트는 데이터 200MB가 추가되며 음성 6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이 기본 제공되며 월 이용료는 1만6500원이다.

한 휴대전화 대리점 점주는 "대부분 자녀가 부모님께 자기 명의로 스마트폰을 시드리기 때문에 어르신 요금제 이용은 크지 않은 편"이라며 "장년층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계속 증가할 추세라 이를 대비한 차별화된 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하기자 unlaja@metroseoul.co.kr

제품 안전사고 61건 접수

국표원, 11건 개선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에 제품 안전사고 61건을 접수해 11건에 대해 리콜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품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올해 초부터 운영해 왔다.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올해 1월 4건에 그쳤던 제품 안전 신고는 3월 이후로 매월 10건을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61건이 접수됐고 이 중 48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리콜 5건, 제품개선 의견 통보 2건, 제품설명서 보완 1건, 품질관리 권고 3건 등 총 11건의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대상 제품 중 전기 찜질기의 경우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제품이었다. 조사결과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인증 자체가 취소됐다.

이밖에도 멀풍등과 휴대용 배터리, 안정기 내장형 램프, 열냉각 시트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전체 사고 접수 건수 중 제품 정보 표시 불량이 26.2%로 가장 많았고 화재 및 화상(23.0%)과 피부적 부작용(9.8%)을 신고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어린이 제품이 전체 건수 중 18.0%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은 편이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위험한 제품에 대한 사고 조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세종=김주엽기자 bass@

일본서 와이파이 자동로밍 KT는 일본 이동통신사업자인 NTT 도코모와 제휴해 3일에 1만원(부가세 별도)만 내면 국내 가입자가 일본에서 제휴 와이파이(Wi-Fi)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WiFi 자동로밍' 서비스를 8월 출시했다고 밝혔다. /KT 제공

대기업의 중기 기술유용 차단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사실상 빼앗는 행위가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배석 집행이 필요하다"며 "기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대기업)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심사지침 예시는 삭제하고 일부 예시는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됐고,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또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이 기술유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서 배포했다.

/김주엽기자

"이동사 보조금 경쟁 지양해야"

최성준 방통위원장 "700MHz 주파수는 재난망 우선"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서비스·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2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통신정책에 대한 미래부·방통위간 업무분담을 놓고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00일간 방통위에서 일해보니 과거 법원에서 일할 때와 다르더라"며 "법원에서 일할 때는 속도감보다 정확한 결론이 중요한데 방통위는 두가지 다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시장에 대해선 "이동사들이 업계를 생각하면 가입자 수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 고득에 목표일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라며 "서로 보조금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요금·서비스·품질 경쟁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익 남는 부분을 투자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이 아무리 수익을 내도 비용이 늘어나면 투자하기 힘들다"라며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관심과 재원이 필요한데 지원 면에서는 보조금 경쟁에 쓰인 돈을 돌려서 소비자에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통신시장이 5:3:2 구조로 고착화된 데 대해서도 이 원인이 보조금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사실상 각 이동사가 내놓은 요금제도 비슷하고, 한 업체에서 품질이 더 낫다고 하지만 결국에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따라가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며 "결국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을 결정하는 데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방송-이동업계간 간 공방을 벌여온 700MHz 주파수 대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디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망은 당연히 우선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y@4038

건설업계, 돈벌어 과징금 내면 끝?

Issue & View 과징금 폭탄 논란

/박선옥기자 psn920@metroseoul.co.kr

올해만 입찰담합 12건 적발… 7493억원 부과

건설사들이 입찰담합 적발에 따른 잇단 과징금 부과로 휘청이는 모습이다. 몇 년간 불황에 시달리다 이제야 겨우 실적 좀 개선되다 했더니, 돈 벌어 과징금만 낸다는 자조 섞인 푸념도 흘러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과징금 4355억원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건설사들의 과징금 규모는 총 7493억원에 이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징금이 435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1323억원) ▲천안운하(991억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402억원)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122억원) ▲공촌하수처리장·광주전남 수질센터(121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담합 건으로 부과된 4355억원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역대 과징금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과징금 중에서도 지난 2010년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징금 악몽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공정위는 4대강 2차 턴키공사와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담합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지난해 전년 대비 급감한 영업이익을 내거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과징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셈이다.

◆담합 조장하는 입찰제도

건설업계에서는 과징금 폭탄보다 담합을 조장했던 정부가 이제와 나 몰라라 한다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담합이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잘못을 부정하지도, 처벌을 피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다만 "공사 수행능력을 가진 건설사가 한정된 가운데 여러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면서 한 공구에만 입찰을 하라는 것은 담합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임기 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밀어붙이기 식의 발주가 이뤄지다 보니 건설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쟁입찰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 관계자는 "지금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들은 모두 5~6년 전에 발주된 대형 국책사업들인데 당시 정부에서 업계 간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유도한 측면도 있다"며 "공범이면서 건설사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구성된 데다 해외 건설사들의 진출까지 사실상 막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정부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에 유혹을 느낄 만한 환경을 조성해줬으며 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감시를 안했다"며 "정치사회 관료사회에서 로비나 뇌물 등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선옥기자 psn920@metroseoul.co.kr

포스코건설 '여덟 빛깔 무지개 캠프' 실시 포스코건설이 지난 24일과 25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기획한 '여덟 빛깔 무지개 캠프' 에서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강동구 전세·분양시장 '기지개'

업무단지 금물살… 수요자 유입 이어져

금융위기 이후 침체일로를 걷던 강동구 주택시장이 최근 기업 이전과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업무단지 부재로 인한 베드타운화 등의 문제가 맞물리며 침체를 겪었지만 첨단업무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고덕지구상업업무복합단지 등 고덕구 내 일자리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최근 시세 수준의 새 아파트가 속속 분양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강동구 강일2지구 내 첨단업무단지의 조성이 연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임직원수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삼성엔지니어링이 2012년 둥지를 틀었다. 세스코, VSL코리아와 DM엔지니어링, 세종텔레콤, 한국종합기술,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휴다임, 나이스홀딩스, 나이스신용평가 등의 기업이 입주를 마쳤거나 올 10월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상일동 엔지니어링복합단지 개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시의 최종 방침과 함께 연내 산업단지 지정과 SH공사의 공영 개발이 추진된다. 인근 고덕동에 센터가 어우러진 고덕지구상업업무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처럼 강동구에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이들 회사 종사자들의 유입도 빠르게 이뤄지는 모습이다. 당장 전셋값부터 강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강동구 전세가 상승률은 0.26%로, 서울 평균(0.11%)은 2배 이상 웃돌았다.

강동구 강일동의 강일리버파크 1단지의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전세값이 2억9000만원으로 연초보다 3000만원 가량 올랐다.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84㎡는 같은 기간 2000만원 오른 4억9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분양시장도 활기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이 강동구 천호동에 공급한 '래미안 강동팰리스'는 조기 저조한 계약률에도 이달 100% 마감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강동구 일대가 업무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었다"며 "특히 강동구에 새 아파트가 없던 차에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속속 계약에 나서 부동산 불황에도 불구하고 100% 계약을 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n920@metroseoul.co.kr

8월 전국 아파트 2만6194가구 '집들이'

서울 > 경남 > 세종순

8월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국민임대 제외) 입주물량은 32곳 총 2만6194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7월 1만7826가구에 비해 8368가구 증가한 물량이며 지난해 8월 8818가구와 비교하면 1만7376가구가 늘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은 10곳 총 8442가구가 입주한다. 서울 3곳 4703가구, 경기 6곳 3007가구, 인천 1곳 732가구다. 7월 수도권 입주물량인 2300가구에 비해서는 6142가구나 늘었다. 입주 단지수도 7월 5곳에서 2배 증가했다.

지방은 22곳 1만7752가 입주한다. 경남이 7곳 4415가구로 가장 많고, 세종 3곳 3860가구, 전북 2곳 2795가구, 부산 3곳 2235가구, 강원 2곳 1380가구, 대전 1곳 1236가구, 대구 1곳 774가구, 충남 1곳 436가구, 경북 1곳 417가구, 전남 1곳 204가구다. 7월 입주 1만5526가구에 비해 2226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8월은 전세시장도 비수기인 데다 입주물량까지 증가해 전세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12월에 약 1만2000가구의 입주 물량이 남아 있는 세종시는 당분간 전세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희기자 kmd@

"세금문서 과연 클라우드에 저장할까?"

IT Cafe

●WD 마케팅 디렉터 대런 블랙

개인용 저장장치 6TB 시대 NAS, 용량·보안·가격 강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TB급의 저장 장치를 쓴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웠다.

기기 자체의 가격도 비싸지만 이 기기가 찰 정도의 콘텐츠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초고화질은 10GB를 넘기도 하고 흔히 듣는 MP3 파일도 예전 용량의 10배이상 큰 FLAC와 같은 스튜디오 원음 음질이 대세다.

업무용이 아니라도 TB급 저장장치의 쓰임새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NAS(Network Attached Storage)다. 외장하드를 네트워크에 연결해 용량과 휴대성을 모두 충족시킨다.

일종의 개인용 클라우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클라우드와 달리 관리, 보안, 가격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글로벌 스토리지 기업 WD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최근 NAS용 6TB 레드 시리즈를 선보였다. 최근 방한한 이 회사의 마케팅 디렉터 대런 블랙은 국내 종합지 가운데 유일하게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 시장의 의의는?

"인터넷 브로드밴드 속도와 보급율, LTE 스마트폰 가입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피드백이 빨라 기업 입장에서는 더 없이 훌륭하다."

-이번에 나온 제품이 레드 다. 왜 레드인가.

"WD는 소비자가 목적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컬러로 제품을 분류한다. 레드는 비디오 편집이나 고용량 사진을 저장하는 크리에이티브 작업에 적합한 제품이다.

그린의 경우 소음이나 발열이 적어 전기를 상대적으로 덜 먹는다. 노트북을 주로 쓰는 고객에게는 블루나 블랙 시리즈가 어울린다.

승용차에 맞는 타이어와 세단에 적합한 타이어가 다르듯이 소비자가 자신의 업무에 최적화된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셈이다."

WD 마케팅 디렉터 대런 블랙이 NAS신제품 '레드'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WD 제공

-클라우드가 유행인데 NAS를 쓸 이유가 있는가.

"NAS는 개인용 클라우드다. 내 저장장치가 집에 있기 때문에 통제권이 100% 나에게 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문서를 일반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싶은가?"

-일반 저장장치에 비해 NAS는 비싸지 않은가.

"레드 1, 2, 3TB 드라이브 가격이 각각 109와139, 189달러다. 수요 업체의 외장하드와 큰 차이가 없다."

-네트워크가 결합한 제품이라 고장 발생 가능성이 클 것 같다.

"WD는 최장 5년의 AS기간을 보장한다. 제품력에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수치다. 총판이 망하더라도 전국 어느 곳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박성훈기자

터치 한 번에 스마트폰 '쌩쌩'

인프라웨어, 최적화 앱 '게임터보' 출시

스마트폰을 최적화해 게임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인프라웨어 테크놀러지는 안드로이드 전용 게임 최적화 앱인 '게임터보(GameTurbo)'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게임터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메모리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한 번에 정리해 게임의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장점이다.

일반 최적화 앱과는 달리 게임 유저들이 게임환경에 적합한 환경을 보다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원터치 기능을 제공한다. 앱 최적화, 다양한 게임 실행 경로 제공, 게임 앱 자동추가, 앱 실행 환경 설정 등 최적의 게임환경 조성에 필요한 유용한 기능들이 가득하다.

엄태질 인프라웨어 테크놀러지 대표는 "게임터보는 속도 저하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요소를 게임 환경에 맞게 원터치로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며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게임도 '게임터보'를 이용하면 최상의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LG전자 안드로이드OS 탑재 '펜북' LG전자가 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탭북(모델명 11TA740)을 출시했다. 11.6인치 풀HD IPS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이 제품은 16.7mm의 얇은 두께와 1.19kg의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가고 싶은 곳 말 하세요"

다음 지도, 음성 검색 도입

이젠 스마트폰에 말만 하면 원하는 경로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지도' 앱(안드로이드 버전)에 음성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의 음성인식 엔진인 '뉴톤(NewTone)'을 적용해 검색하고 싶은 장소나 경로를 말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도착지까지의 경로를 안내해준다.

완성된 문장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찾아준다. 이를테면 "여기서 서울시청 가는 길", "고속터미널 가는 방법" 등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원하는 경로를 검색할 수 있다.

길찾기 외에도 지하철·버스의 막차시간과 같은 대중교통 정보나 특정 장소, 실시간 교통상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상금과 프로게이머 비법 잡아라"

'로지텍 G배 LOL 대회' 참가자 모집

우승상금 200만원은 물론 프로게이머의 비법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개인용 주변기기 전문기업 로지텍 코리아가 다음달 3일까지 '로지텍 G배 LOL(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 380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NLB, 롤챔스 본선에 진출한 경력이 없고 레벨 30을 달성한 소환사 이상의 이용자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된 팀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리그오브레전드 한국 커뮤니티(cafe.naver.com/lolkor) 내 로지텍 LOL 대회 게시판에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대회 최종 결승 진출팀은 로지텍G 제품 풀 세트는 물론 로지텍이 후원하는 CJ 엔투스 소속의 프로게이머 블레이즈와 프로스트에게 LOL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다.

56개 팀이 참가하는 로지텍 G배 LOL 대회는 다음달 4일 예선 첫 경기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예선 준결승을 치른다. 결승전은 8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날씨 오락가락…술 소비 ↑

안주류·맥주잔 판매 증가…액세서리·와인용품도 매출 2배 늘어

찜통 더위, 장마 등 오락가락 날씨와 사회적 이슈가 엇갈리면서 술 소비가 늘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수입 맥주 판매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안주류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이 18일부터 24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맥주 안주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오징어·한치 판매는 166%나 증가했다. 후랑크·비엔나 소시지의 판매도 102%, 수제햄·수제소시지 판매는 70%가 각각 늘었다. 맥주 소비가 늘자 안주 수요도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맥주잔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는데 일반적인 맥주잔뿐만 아니라 집에서 맥주를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상품들도

인기를 얻고 있다.

G마켓에서 판매하는 '게르조 코리아 맥주 디스펜서'(11만원)는 긴 시원한 형태의 튜브에 용량별 눈금이 표시돼 있다. 내부에 얼음을 넣을 수 있어 음료의 온도를 차갑게 유지해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시원한 효과를 준다.

이밖에 G마켓 큐레이션 쇼핑몰 G9에서는 '아와마스터 맥주거품 제조기'(사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생크림처럼 입자가 고운 거품을 만들 수 있어 집에서도 시원한 생맥주를 즐기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다. 무독성 젤타입의 냉매가 내벽과 외벽 사이에 들어 있어 냉동실에 1~2시간 넣어둔 후 맥주를 따라 마시면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필렌 아이스컵'(375㎖)도 인기다.

맥주 외에 간단하게 와인을 즐기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G마켓에서는 같은 기간 와인용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으로 2배 이상(126%) 증가했다. 세부 품목으로는 와인잔걸이 홀더 판매가 3배 이상(259%), 와인랙·선반의 경우 46% 늘었다. 와인 샴페인잔은 16% 신장했다. 와인 안주로도 인기 있는 비스킷·크래커·샌드 판매는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급증(902%)했으며 치즈·버터 판매는 50% 늘었다.

/장병일기자

꽉 막힌 도로 위 건강 간식

여름 휴가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휴가철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는 장시간 장거리 운전 동안에 쏟아지는 졸음과 누적되는 피로와 싸워야 한다.

핫바·핫도그·치킨 등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들로 배를 채운 후 장시간 차를 타게 되면 속이 갑갑하거나 더부룩해 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식이섬유가 함유된 제품은 과다한 영양섭취를 막고 음식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섭취하면 좋다.

현대약품의 '미에로화이바 레드'(사진 왼쪽)는 하루 식이섬유 5g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다. 상큼한 자몽향이 첨가된 미에로화이바 레드는 기존 식이섬유 음료와 차별화된 맛과 디자인이 특징이다.

풀무원다논의 '아이러브요거트 쭉쭉'(가운데)은 우유의 영양소인 칼슘과 단백질에 유산균까지 고루 섭취할 수 있어 아이들 건강 간식으로 제격이다.

올가홀푸드의 '올가 우리가족 한줌견과'(오른쪽)는 우리 몸에 좋은 유기농 견과류인 구운 아몬드와 캐슈넛·피스타치오 등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웰빙 디저트다.

/장병일기자

데킬라 '호세쿠엘보 에스페샬 실버' 28일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데킬라 브랜드 '호세쿠엘보 에스페샬 실버'의 출시를 기념해 모델 김예솔과 주다하가 시그니처 칵테일과 스카콜잔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코리아 제공

강강술래 '바캉스 포장상품 인기' 전년비 30% ↑

국내 피서·캠핑 즐기는 자린고비 소비자 증가 10일까지 육류세트·가공식품 최대 40% 할인

계속된 불황 탓에 국내에서 알뜰하게 휴가를 즐기려는 자린고비 바캉스족이 늘면서 테이크아웃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강강술래가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바캉스 대축제'의 포장상품 매출도 전년보다 30% 이상 껑충 뛰어올랐다고 28일 밝혔다.

강강술래는 오는 8월 10일까지 5종의 바캉스세트를 전 매장과 쇼핑몰(sullamall.com), 전화주문(080-525-9292)을 통해 최대 40% 할인 중이다.

행복세트(한우불고기1kg+돼지양념1kg)와 사랑세트(한우불고기1kg+LA갈비900g)는 4만원, 정성플러스

세트(한돈양념1kg+돼지양념1kg)는 4만5000원, 실속웰리스세트(한우불고기1kg+한돈양념1kg)는 4만3000원에 판매된다.

왕양념갈비(2대 560g)와 솔레양념(8대 520g), 한우불고기(1kg)로 구성된 어에이징세트도 8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택배비(3000원)를 추가하면 휴가지까지 배송해준다(도서산간 및 섬 별도 문의).

전 매장에서는 야외에서 영양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은 테이크아웃 가공식품 전 품목을 40% 할인 판매한다. 갈비맛쇠고기육포(6봉)는 2만1600원, 한우사골곰탕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 1만8900원,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2400원에 판매한다.

철철한우 떡갈비(360g) 1만2000원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 7200원, 모짜렐라돈가스(720g) 1만800원, 등등심돈가스(720g) 9000원)도 정상가보다 40% 할인가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행사기간 전 매장에서는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뉴하이트 맥주를 한 병 시키면 한 병을 더 주는 '열대야 극복 1+1 이벤트'도 펼친다.

/장병일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국내 진출 15주년

"'리저브' 매장 내년까지 60개로"

이석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가 28일 국내 진출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어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스타벅스 제공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는 국내 진출 15주년을 맞아 28일 새롭게 개장한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스타벅스 파미에파크 매장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사업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구 대표는 "지난 99년 1호점을 시작으로 매출, 매장 수 같은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수익 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며 성장했다는 점에서 15주년의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전국 62개 도시 680여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6500명의 바리스타들이 하루 평균 32만 여명의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선보인 '스타벅스 리저브' 커피를 현재 7개 매장에서 내년까지 전국 60여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포가토'에 이은 신제품 '스타벅스 피지오'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신제품을 올 하반기에 80여종 이상 선보이며 로컬 음료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리턴맘 채용을 통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 증진, 파트너 복리 후생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3개월 동안 약 480시간 교육시켜 스타벅스 또는 관련 업종에 채용을 돕고자 한다"며 "오는 9월 30~60명 규모로 첫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매년 경상이익의 2% 이상을 사회공헌비용으로 쓰고 있다. 앞으로도 이 비율을 유지하고 올해를 사회적임경영 원년으로 선포, 지속가능성활동백서를 발간하는 등 4분기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픈한 스타벅스 파미에파크점은 한국 진출 15주년을 기념해 '도심의 커피 숲'을 주제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급화한 '하이 프로파일(high-profile)' 매장이다. 커피나무 목재, 천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About 형태의 매장으로 차별화된 리저브 매장 중 한 곳이다.

/김학철기자

불볕더위에도 발은 '보송보송'

통풍 잘되는 운동화 신고 소재별로 맞춤 세탁해야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조금만 걸어도 온몸에 땀이 흐른다. 특히 발은 다른 부위보다 3배 이상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습기가 잘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스포츠 브랜드 써코니 관계자는 "여름철 보송보송한 발은 어떤 운동화를 신느냐에 달렸다"며 "신발을 고를 때 통풍이 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써코니의 러닝화 '킨바라4'는 흡한·속건 기능의 소재를 발목 안감으로 사용해 오래 신고 달려도 꿉꿉하지 않다. 휠라는 아쿠아 슈즈와 러닝화를 결합한 '아쿠아 런'을 내놨는데, 통풍이 잘되는 메시 소재를 갑피에 적용해 장마나 불볕더위에도 쾌적하게 신을 수 있다. 나이키의 러닝화 '루나글라이드6' 역시 갑피에 메시 소재를 써 바람이 잘 통하고 가볍다.

여름 운동화는 선택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최근 출시된 운동화들은 러닝·워킹·트레킹 등 종류가 세분화돼 있고, 그에 맞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수명이 줄어든다.

메시·캔버스 등 섬유 소재의 운동화를 빨 때는 먼저 솔을 이용해 먼지를 털어준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찌꺼기에 문댄 후 오염부분을 살짝 문질러 닦아준다. 오래 담가두면 신발의 색이 빠질 수 있다. 세탁 후에는 바람이 잘 부는 그늘에 말려야 형태가 뒤틀리거나 색이 변하지 않는다.

한편 가죽·고어텍스 운동화는 자주 세탁하면 방수·투습 기능이 손상된다. 부드러운 천으로 오염물을 제거하고, 가죽전용크림이나 고어텍스 전용 발수 스프레이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손질하는 게 좋다.

합성피혁과 에나멜 소재의 운동화는 비교적 물에 강해 관리가 수월하다. 솔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세제 2~3방울을 섞은 물을 행길에 적셔 얼룩진 뒤 닦으면 된다. 다만 운동화 색이 묻어날 수 있으므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시험해 보고 사용해야 한다. 다 말린 뒤에는 에나멜 전용 클리너나 오래된 로션을 이용해 한 번 더 닦아주면 더 깨끗하게 오래 신을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앱테크 족'을 잡아라!

모바일 시장 성장· 할인으로 소비자 공략

내수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에서는 주문이 보다 간단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특화된 상품이나 할인·적립 등을 활용해 알뜰한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4대 홈쇼핑 실적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매출이 PC 매출을 약 5배 앞질렀으며 그 중 어플을 이용한 구매 비율이 거 5%에 달해 '앱(App)코노미' 시대라 불릴 정도다. 이에 따라 일류 모바일 쇼핑족 '앱(App)테크족' 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업계들의 계획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디지털사진 인화기업 찍스는 어플 2.0 버전 출시를 기념해 찍스 모바일 웹 또는 어플로 주문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사진인화 ... 10원에 제공하는 사진... 벤트를 벌이고 있다. ... 까지 열리는 이번 이벤트... 이즈에 한하며 최대 50... 된다.

노티노피자는 모바일 또는 어플에서만 주문 가능한 '모바일 스페셜 복날 세트'를 8월 1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이 세트는 슈퍼스코 지즈를 피자M' '재킨 범마리'와 콜라 1.25ℓ로 구성돼 있다. 정상가는 3만3900원이지만 모바일 주문 시 1만400원 할인된 2만3500원에 살 수 있어 혜택이 크다. 피자를 라지 사이즈로 구매할 시 5400원만 추가하면 된다.

배달전문 어플 배달통은 오는 8월 7일까지 첫 모바일 결제 주문회원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삼복 3번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첫 모바일 결제 시 플러스 쿠폰 입력란에 '초복에는배달통' 문구를 넣으면 2000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두 번째 주문 시 '중복에도배달통'을 입력하면 3000원을, 마지막 세 번째 주문 시 '말복까지배달통'을 입력하면 4000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도 마찬가지다. 쇼핑몰 위즈위드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매일 기존 가격에서 5~10% 할인된 모바일 특가 상품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또 핫딜이나 인기상품 이벤트 정보를 따로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롯데슈퍼는 최근 모바일 어플을 개편하고 '반어사(반값에 사세요)'라는 이름의 소셜커머스 플랫폼을 마련했다. 매일 오전 10시 소수의 판매상품을 정해 24시간 동안 절반 가격에 파는 방식이다.

세븐일레븐은 모바일 쇼핑앱을 통해 매달 20여개의 편의점 베스트 상품을 30~40% 할인가에 판다. 매달 30~40여여 개 상품을 선정해 최대 30% 할인하는 쿠폰도 무료로 준다.

/정혜현기자 hyun0404@metroseoul.co.kr

'군인도 건강한 발 관리' 유한양행의 토탈 풋 케어 브랜드 나인풋이 28일 군인의 건강한 발 관리를 도와줄 '나인풋 밀리터리 박스'를 선보이고 있다. 밀리터리 박스는 수딩 풋 제지·메디자이클 메딜젠·쿨링 풋 워시·풋 데오도란트 스프레이·쿨링 아로마 미스트·마사지볼 등 발 관리에 필요한 제품 6종으로 구성됐다. /나인풋 제공

뉴스&뉴스

금강제화 '레노마 트렌디 스니커즈' 출시

● 금강제화는 화려한 색상과 소재가 돋보이는 '레노마 트렌디 스니커즈'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휠 소재가 더해진 투명한 아웃솔은 3cm 키 높이 효과와 함께 충격 완화 기능이 있다. 또한 쿠셔닝 탄성이 뛰어난 소재를 중창에 사용해 장시간 신어도 발이 편안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색상은 옐로·실버·퍼플 등 세 가지가 있다.

헤드 새 모델에 하정우

●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헤드는 배우 하정우의 모델 판 계진을 새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정우의 판계진은 2014 가을·겨울 시즌 심플한 레블스 다운 시리즈의 광고를 시작으로 각각 6개월과 1년간 헤드의 광고 모델을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한다. /박지원기자

"젤 타입의 수분크림 제대로 알고 쓰자"

1회분씩 자게해서 즉시 사용

아무리 피부에 좋아도 덥고 습한 날씨에 묵직한 수분크림은 불쾌지수만 높일 뿐이다. 가벼운 젤 타입의 수분크림은 시원한 느낌은 물론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여름철 잇 아이템으로 꼽힌다.

젤 타입 수분 크림을 사용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보관 온도와 개봉 후 보관 방법이다. 흔히 가정용 냉장고에 두고 차게 해서 쓰는데, 이는 옳지 않다.

지나치게 낮은 온도의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음식 속 저온 세균의 영향으로 제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평소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고, 1회 사용량만 냉장고에 넣었다 즉시 사용하거나 화장품 전용 냉장고를 활용해야 한다.

젤 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할 때 간혹 때처럼 밀려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젤 타입 수분크림의 특성 때문이다. 일반 크림에 비해 유분기가 적은 탓에 바로 흡수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 피부 속까지 완전히 흡수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아직 수분크림이 남아 있는 피부 위에 유분기가 있는 다른 제품을 바르면 유·수분이 섞이지 못하고 겉돌며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따라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수분크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수분 베이스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 관계자는 "간혹 열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품을 과도하게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 속 수분 흡수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량만 바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라식·라섹수술 여름에 해도 괜찮나?

시력교정술 계절과 무관 … 물놀이 한 달 피하고 여성들은 화장 조심해야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수술이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중 가장 민감한 부위에 받는 수술이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더욱이 여름철에는 감염과 부작용이 높다는 인터넷 정보로 수술을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계절은 무관, 안구관리가 관건

감염과 회복 시간 등으로 여름철 시력교정술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력교정술은 기본적으로 계절과는 무관하다.

덥고 습한 날씨가 세균 감염 등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약제의 발달로 감염이나 염증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또 계절보다 수술 전후 환자가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안구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 수술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자외선이나 화장품 등 외부 환경에 눈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로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원데이 라식 이라도 물놀이는 금물

최근 오전에 검사를 받고 오후에 수술받는 '원데이 라식'이 등장하면서 단시간 시력교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수술에는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원데이 라식이라도 한 달 정도는 물놀이를 피해야 한다. 시력의 퇴행을 막기 위한 것이며 수술 후 2~3일은 안구관리에 철저히 집중해야 한다.

시력교정술 후에 나타나는 안구건조증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여름에는 실내에서 냉방기를 많이 사용해 눈이 쉽게 건조해진다. 이런 건조 증상은 6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지만 수술 후 눈이 심하게 건조하다면 인공눈물을 사용해 건조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방부제가 들어간 인공눈물 대신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시력교정술은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간혹 눈에 안약을 넣는 환자가 있는데 안약은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며 여성들은 색소나 가루 성분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안전상비약 꼭 챙기세요~

어른·어린이용 따로 준비

휴가철 모두들 산이다 바다로 여행을 떠나지만 어디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편의점 등에서도 다양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휴가철 안전상비약을 미리 챙겨놓는 것이 좋다.

먼저 상비약에는 두통 등의 통증을 대비한 진통제가 필요하다. 진통제는 몸 상태를 고려해 고르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장장애에 취약한 한국인에게는 '타이레놀'과 같이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가 안전하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음주 시에는 피해야 한다.

또 에어컨의 과도한 사용과 물놀이 등으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감기약과 해열제를 준비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성인용 해열제를 임의로 쪼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을 과다 복용이 쉬워 있어 반드시 어린이용 해열진통제를 먹여야 한다.

아울러 야외활동 중 넘어지거나 긁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소독약과 상처 치료제는 물론 상처 부위의 노출을 막아줄 반창고나 붕대 등도 휴가의 필수품이다.

벌레에서 벌레에 물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 긁거나 침을 바르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삼간다. /황재용기자

여름철 체리 피부에 양보하세요~ 갤러리아백화점는 26일부터 전점 식품관에서 미국 워싱턴주에서 생산되는 스윗하트(Sweet Heart)를 출시했다. 이 체리는 크기가 크고 꼭지 부분이 진녹색으로 매우 신선하며, 식감이 우수한 최고급 체리 품종이다. 체리는 피부 미백과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성분이 풍부해 여름철 지친 피부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제공

편의점 즉석 조리제품 잘 나가네

1·2인 가구 증가 때문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빵·피자·커피 등 편의점에서 매장 직원이 직접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니스톱은 조각치킨·꼬치·빅도그·아이스음료·소프트크림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다. 소프트크림의 경우 학생부터 20~30대 직장인들에게까지 골고루 사랑 받으면서 올해 상반기 59%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CU는 베이커리·튀김·도너츠·에스프레스 커피 등을 상시 판매한다. 오뎅·찐빵·호빵도 동절기 시즌 상품으로 운영 중이다. 매출도 지난해 1분기부터 매 분기 꾸준히 20%를 웃돌고 있다. 올해 역시 6월말 기준 19.4% 신장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매장에서 오븐에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즉석피자 콤비네이션·불고기·치즈 3종을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2008년 카페 점포를 연 이래로 베이커리·핫푸드 등에 특화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루 두 번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구워 판매하는 베이커리 점포는 일반 베이커리 전문점보다 가격이 20~30% 저렴하다.

회사는 전문 제빵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점의 품질을 관리하고 빵 굽는 과정을 단순화·매뉴얼화해 가맹점 근무자의 수고를 덜고 있다. 매장에서 만드는 빵은 아침 출근 시간대 매출이 가장 좋다. 베이커리를 구매할 때 커피나 유음료를 함께 구매하는 연관 구매가 증가해 베이커리형 점포로 전환 후 평균 15% 이상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GS25는 매장 조리 식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전자레인지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PB 상품 '위대한 시리즈'에 집중하고 있다. 즉석 조리 식품과 같이 경영주가 직접 조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없앤 상품 카테고리라는 것이 GS리테일 측의 설명이다. 이 상품군은 고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57.1%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79.1% 늘었다.

/유혜인기자 hjyoo0404@

JAL, 노선 스케줄 변경

편의성 향상 … 북미·아시아 노선 판매 강화

JAL그룹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북미·아시아 노선 수요에 대한 판매 강화와 편의 향상을 위해 스케줄을 변경했다.

오전에 출발하던 나리타~보스턴 노선은 저녁 출발로 변경됐으며 나리타에 새벽에 도착하던 나리타~로스앤젤레스 노선은 저녁에 도착하게 됐다. 또 하네다에 심야에 도착하던 하네다~샌프란시스코 노선과 하네다~호치민 노선은 새벽 도착으로 변경됐다.

JAL은 이번 스케줄 변경으로 각 노선에 당일 연결되는 도시가 2배 정도 늘었으며 일본 국내선 전 노선으로도 당일 환승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JAL의 공동 사업 파트너인 아메리칸항공이 나리타~로스앤젤레스 노선의 운항 스케줄을 바꿔 이 노선에 연결되는 회사의 아시아 취항지 수가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JAL은 앞으로도 네트워크 및 상품·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강박을 이기고 이순신이 되다

| 영화 '명량'으로 돌아온 최민식 |

"정말 궁금했어요.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눈빛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을지 미치도록 궁금했죠. 엄청난 강박에 시달릴 정도였어요."

올해로 데뷔 25년을 맞는 배우 최민식(52)이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으로 돌아왔다. 작품마다 진심을 담아 연기해온 그에게도 이순신 장군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실존 인물이지만 허구보다도 더 허구 같은 이순신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명량'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선과 맞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기적 같은 승리에 호기심을 느낀 김한민 감독은 당시의 재현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묵직하게 역사를 바라보는 김한민 감독의 소신 있는 태도가 최민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민식은 그동안 사극은 물론 멜로, 드라마, 스릴러, 느와르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캐릭터를 소화해왔다. 그럼에도 '명량'의 이순신 장군을 연기하는 건 크나큰 고민으로 다가왔다. 이순신 장군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는 난중일기처럼 사실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캐릭터를 연구했다. 그럴수록 이순신 장군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완벽에 가까운 존재로 다가왔다. 위대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그로 하여금 강박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제 판단에는 육군에 합류하라는 선조의 명령을 따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인데 원통함이나 억울함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그럼에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군의 모습이 나를 절망시키더군요."

최민식에게 이순신은 실존 인물이면서 동시에 허구보다 더 허구 같은 인물이었다. "이순신 장군을 만나 딱 10분이라도 왜 싸워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그의 말에 영화 촬영 동안 느낀 답답함이 잘 묻어났다.

깊은 고뇌와 강박 속에서 최민식이 찾아낸 이순신 장군은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쉽게 경거망동하지 않았던 분"이었다. 국운이 걸려있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슬픔과 절망, 분노와 억울함과 같은 속마음을 선뜻 드러낼 수 없었던 이순신 장군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최민식은 이순신 장군이 겪었을 인간적인 고뇌를 스크린 위에 설득력 있게 펼쳐보였다.

최민식은 '명량'의 울림은 "이순신 장군과 백성들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무릇 장수된 자의 도리는 충을 좇는 것이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대사처럼 영화는 이순신 장군을 묵묵히 응원하며 전쟁을 함께 하는 백성들의 모습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순신 장군과 백성들이 보여준 서로에 대한 믿음은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최민식은 설명했다.

완벽한 존재 앞에서 느낀 무력함
복잡한 감정 인간적 고뇌로 표현
"절실히 원하는 작업 계속 하고파"

'명량'을 마친 최민식은 할리우드로 건너가 뤽 베송 감독과 함께 액션 블록버스터 '루시'를 촬영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다"는 뤽 베송 감독의 러브콜에 출연을 결심했다. 오는 9월 국내 개봉을 앞둔 만큼 기대도 높은 상황이지만 그는 "'루시'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가서 하자"며 말을 아꼈다. 다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며 계속해서 할리우드에서 활동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명량'과 '루시'의 연이은 개봉으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지만 작품 활동에 대한 열망은 여전하다. 최민식은 "예전보다 작품 욕심이 더 생긴다"고 말한다. "내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대중들과 오래 만날 수 있겠죠. 내 몸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직은 파이팅이 있으니까요."

/[illegible] 기자 [illegible]
디자인/[illegible]

日 아레나 투어 마친 대성 2년 연속 10만 관객 동원

빅뱅 대성(사진)이 2년 연속 일본 아레나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성은 지난달 11일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D-라이트 D라이브 2014 인 재팬 ~D라이브~'를 시작해 지난 26~27일 오사카조 홀 공연까지 총 8개 도시에서 15회 공연으로 17만 명을 동원했다.

지난해 첫 아레나 투어를 열어 20개 도시에서 26회 공연으로 10만 명을 동원했던 대성은 한국 솔로로는 최초로 2년 연속 10만 명 이상을 동원한 투어 가수다.

마지막 공연에서 대성은 3시간 40분 동안 25곡을 선사해 1만6000여 명의 관객을 열광시켰다. 드럼 연주도 뽐낸 그는 공연 도중 "가을께 솔로 가수로서 새로운 커버곡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성이 일본에서 최근 발표한 앨범 '디스 러브'는 발표 당일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8일자 주간차트에서도 3만7900여 장의 판매량으로 2위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M 2년 만의 신인 레드벨벳 데뷔

내달 4일 4인조 나서… 가요계 '떼그룹' 전략 변화 예고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신인 걸그룹 레드벨벳을 공개했다.

'대세돌' 엑소 이후 2년 만에 선보이는 신인 그룹. 2009년 데뷔한 에프엑스에 이어 6년 만에 나오는 걸그룹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레드벨벳은 다음달 4일 데뷔곡 '행복'으로 전격 데뷔를 앞두고 있다.

◆ 소녀시대+에프엑스?

SM이 야심차게 선보인 레드벨벳(슬기 아이린 웬디 조이)은 다음달 4일 전격 데뷔한다. SM은 28일 공식홈페이지와 SM타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멤버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강렬하고 매혹적인 컬러 '레드'와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의 '벨벳'을 조합해 만든 그룹이지만 기존 걸그룹과 마찬가지로 깜찍함과 귀여움이 묻어난다.

티저 영상에서는 아마존 정글을 연상케하는 벨보티를 입혔지만 마지막 장면에 네 명 모두 빨갈한 치어리더 복장을 입고 등장해 궁금증이 더하다. 소녀시대의 대중성과 에프엑스의 실험성의 중간 정도의 콘셉트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한 듯 하다.

레드벨벳(왼쪽부터 조이, 아이린, 슬기, 웬디)

이제 남은 건 멤버 개개인의 실력이다. 슬기 아이린 웬디는 SM의 프리데뷔팀 SM루키즈로 먼저 얼굴을 알렸다. 조이는 기존 연습생 과정을 거친 후 최초로 공개됐다. 이들 모두 SM의 체계적인 스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거쳐 데뷔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은 검증됐다는 게 가요계 중론이다.

SM 측은 "레드벨벳은 세련된 음악과 퍼포먼스로 전 세계를 매료시킬 것"이라며 "SM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떼그룹 아닌 4인조 선택

SM은 그동안 떼그룹(인원 수가 많은 그룹) 전략을 취해왔다. 소녀시대(9명) 슈퍼주니어(13명) 엑소(12명) 등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레드벨벳은 파격적인 멤버 구성이다.

'떼그룹'의 장점은 다양한 매력을 지닌 멤버들을 내세워 각기 다른 대중의 기호에 맞출 수 있다. 노래와 춤 실력은 기본이며, 말솜씨가 좋은 멤버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외모나 연기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연기돌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떼그룹'의 단점도 있다. 멤버간 불화와 소속사와 이견 차이로 팀을 탈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SM역시 이같은 고충을 겪은 바 있다.

덕분에 SM이 정예멤버로 구성한 레드벨벳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떼그룹'이 아니더라도 멤버 개개인의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묻어나고 있기 때문. 아이돌 시장에서 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온 SM의 전략이 통할지 가요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하늘기자 yswill@metroseoul.co.kr

크레용팝 성장 담은 만화 출간

걸그룹 크레용팝이 자신들의 성장과정을 담은 만화책을 출간한다.

28일 크레용팝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는 "크레용팝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만화책 '들격! 크레용팝'(사진)을 오는 31일부터 쿠팡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들격! 크레용팝'은 크레용팝의 데뷔 전 준비과정부터 길거리 게릴라 공연으로 자신들을 알리던 시절을 거쳐 '빠빠빠'로 지상파 1위를 거머쥐기까지 1년여 동안의 과정을 총 5권에 담을 예정이다.

특히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실생활의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를 그대로 재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크레용팝의 평상시 엉뚱발랄한 모습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크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실화를 바탕으로 어린 독자층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유쾌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돼 마치 명랑 만화를 보는 것같은 느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호기자

FT아일랜드 아시아 록페 사냥

중국 최대 축제 매진… 일본서 연이어 무대

FT아일랜드(최종훈 이홍기 이재진 최민환 송승현)가 중국 최대 음악 축제에서 한류 대표 밴드의 저력을 입증했다.

FT아일랜드는 지난 25~27일 중국 상하이 금산성시 해변에서 펼쳐진 '2014 토마토 지브라 뮤직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무대에 출연해 베이시스트 이재진의 자작곡 '타임 투 룸'을 비롯해 '플라워 락' '프리텐더' '바래' '말이야' '좋겠어' 등 6곡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중국 대륙을 사로잡았다.

이번 지브라 뮤직 페스티벌 3일 무대 중 FT아일랜드가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린 27일 공연은 일찌감치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중국의 유튜브로 불리는 유쿠에서 FT아일랜드가 이번 뮤페 인기도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려 현지의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다.

중국 공연 당국은 FT아일랜드의 높은 현지 인기로 엔딩 무대 진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을 우려, 원래 엔딩 무대로 확정된 FT아일랜드의 순서를 엔딩 바로 앞으로 바꾸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FT아일랜드의 공연을 기다리기 위해 많은 관객들이 이른 시간부터 해변을 메우며 FT아일랜드를 기다렸으며 현지 팬들은 관객석을 FT아일랜드 공식 팬클럽 '프리마돈나' 상징 색깔인 노란 물결로 수놓으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한편 중국 뮤직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친 FT아일랜드는 일본으로 건너가 8월 15일 '에이네이션', 8월 16~17일 '2014 섬머소닉'에 이어 9월 14일에는 '2014 이나즈마 록 페스티벌' 등 내로라하는 록 일본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며 아시아 록페 접수를 이어간다.

/최해훈기자

'시크릿 써머'로 돌아오는 씨크릿

내달 11일 컴백… 드림팀 총천 대규모 프로젝트

4인조 여성그룹 시크릿(사진)이 다섯 번째 미니앨범 '시크릿 써머'를 다음달 11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아이두 아이두' 이후 7개월 만에 컴백하는 시크릿은 드림팀을 꾸려 이번 앨범을 준비했다. 타이틀곡 '아임 인 러브'는 히트 메이커 이단옆차기의 곡이다. 뮤직비디오는 소녀시대, 포미닛, 인피니트 등과 호흡을 맞춰온 홍원기 감독이 연출한다.

그동안 시크릿의 '별기춤' '아기고양이춤' '청권춤' 등 인상적인 안무를 만들어온 댄스팀 '플레이'가 다시 뭉쳤다.

시크릿은 이례적인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서울 강남을 포함한 전국 5개 도시 번화가에 대규모 컴백 관련 광고를 내건다. 지상파 TV 광고도 한다. 걸그룹으로는 최초의 시도다.

시크릿은 그동안 보여줬던 귀엽고 깜찍한 소녀가 아닌 사랑에 빠진 고혹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

갈 길 찾은 '슈퍼맨' '오마베'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휘재의 쌍둥이 아들 서언과 서준.

SBS '오 마이 베이비' 리키김·류승주 부부의 아들 태오.

육아예능 아류·상업성 논란… 아이 성장·키운 정으로 극복

안방의 스테디셀러인 육아 예능이 정체성 논란에서 벗어나고 있다. 육아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그 동안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와 SBS '오 마이 베이비'(이하 '오마베')는 MBC '아빠! 어디가?' 아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후·추사랑을 비롯한 출연 아이들이 광고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 광활약하면서 상업적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슈퍼맨'과 '오마베'는 육아를 통해 아이와 가정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출연하는 어린이는 시청자와 함께 성장했다. 키운 정을 느낄 수 있어 몰입도는 높인다.

'슈퍼맨' 이휘재의 쌍둥이 아들 서언과 서준이는 지난 27일 농구와 미끄럼틀 거꾸로 오르기를 체험했다. 특히 둘째 서준이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아빠의 도움 없이 45도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랐다.

이휘재는 "가르쳐 준 적이 없다"며 감동했다. 앞서 서준이는 형에게 지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날 형제는 우유병을 두고 다퉜고 서준이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첫째 서언이는 눈물을 흘렸다. 앞서 강봉규 PD는 "'슈퍼맨'은 일상을 담고 있다"며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 아빠의 역할, 가족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한 바 있다.

'오마베' 리키김·류승주 부부의 아들 태오는 '힐태오'라는 애칭답게 우직하게 성장하고 있다. 다칠 것을 우려한 리키김은 미끄럼틀 계단을 치워 태오가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태오는 키보다 높은 미끄럼틀에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계단 없이 오르내리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식욕이 상당한 태오는 엄마의 요리를 "맛이 없다"며 거부할 수 있는 표현 능력도 생겼다. 시청자는 태오 부모 못지 않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많이 컸구나, 감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효진기자 jeonh@metroseoul.co.kr

MBC '무한도전' 스피드레이서 특집 /MBC 제공

KBS2 '1박2일' 김준호. /방송화면

'신의 한 수'로 부활한 리얼 예능

'무한도전' 몸개그·'1박2일' 시민참여… 초창기 웃음 포인트 활용

원조 리얼 예능 프로그램인 MBC '무한도전'(이하 '무도')과 KBS2 '1박2일'이 최근 그들만의 '신의 한 수'로 부활하고 있다. 초창기 웃음 포인트를 활용한다. '무도'는 몸개그와 제작진을 출연시키고, '1박2일'은 시민과 함께 한다.

시청률도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무도' 방콕 특집은 시청률 11.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1박2일'의 경우 지난 27일 방송이 13.3%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MBC '아빠! 어디가?'(9.6%), SBS '런닝맨'(8.4%)을 손쉽게 제쳤다.

'무도' 방콕 특집은 멤버들과 제작진의 몸개그가 중심 소재였다. 멤버들은 태국이 아니라 '방에 콕' 있게 됐다. 코끼리 쇼와 리액스 경매를 간접 경험했다. 멤버들이 코를 잡고 직접 돌다가 어지러워서 떨어지면 그곳에 놓인 리액스를 구입하는 식이다. 태국 문어를 잡기 위해선 수족관에 머리를 넣어 고군분투해야 했다.

김윤의 작가는 이날 특별한 퍼포먼스로 방송 직후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를 장악했다. 김태호 작가에 이어 오랜만에 등장한 '무도'의 스타 스태프다.

'무도'는 그 동안 '선덕 2014', '스피드 레이서' 등 장기 프로젝트를 선보여 웃음보다는 감동과 민심에 치중했다. 잦은 게스트 출연도 '무도' 골수 팬을 아쉽게 했다. "'무도'는 멤버들끼리 있어야 재미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박2일'은 지난달 중간평가에서 출연진의 불협을 확정하며 2막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현재 시즌3를 방송 중인 '1박2일'은 강호동·이승기 콤비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시즌1의 명성에 가려 있었다. 그러나 쓰리쥐 김주혁·김준호·김종민, 근심돼지 데프콘, 4차원 막내 정준영을 필두로 완벽 부활했다는 평가다.

지난 방송에선 박태호 KBS 예능 국장과 예전에 있던 시민이 출연해 예상하지 못한 웃음을 줬다. 박 국장은 원주 역에서 담술에 복불복 까나리 커피로 김종민을 울게 했고 '1박2일' 분당 시청률을 보여주며 최고와 최저의 주인공을 가리기도 했다.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계속 지적하며 멤버들을 긴장하게 했다.

망상 해수욕장에 도착해선 시민과 게임을 했다. 김준호가 급소를 차이는 돌발 상황과 예능인 못지 않은 끼를 보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몰입도를 높였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웃음이 리얼 예능의 본질임을 입증했다.

/전효진기자

여름 안방 '퓨전사극' 맞대결

야경꾼일지 정일우 주연 – 귀신잡는 왕자 이야기 다뤄

삼총사 이진욱·정용화·양동근 출연 – '조선판 삼총사'

올 여름 독특한 사극 드라마 두 편이 안방극장을 찾는다.

MBC 새 월화 드라마 '야경꾼일지'(다음달 4일 첫 방송)는 귀신 보는 왕자라는 신선한 소재를 다룬 판타지 로맨스 활극이다. 드라마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에 순찰을 돌며 귀신을 잡던 밤범 순찰대 야경꾼의 이야기를 담을 계획이다.

주인공 이린(정일우)은 선왕의 적통왕자로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예술 감각을 타고났지만 내면의 상처로 인해 불량 왕자의 삶을 택한 인물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을 보는 능력이 생긴 이린은 백두산 소녀 도하(고성희)와 함께 귀신을 퇴치하며 백성의 삶을 돌아보는 왕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tvN은 다음달 1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삼총사'를 방영한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에서 착안한 '삼총사'는 조선 인조시대를 배경으로 한양에서 무과에 도전하는 강원도의 가난한 양반가 출신 박달향(정용화)이 자칭 '삼총사'인 소현세자(이진욱)와 그의 호위무사 허승포(양동근), 안민서(정해인)를 만나 조선과 명-청 교체기로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오가며 펼치는 액션 로맨스 활극이다.

'삼총사'는 '인현왕후의남자'(2012),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2013)을 통해 마니아층을 거느린 송재정 작가와 김병수 PD가 의기투합한 세 번째 작품이자 '나인'의 히어로 이진욱이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으로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삼총사'는 쪽대본이 난무하는 한국 드라마 제작환경에서 보기 드문 시즌제 드라마로 각 시즌마다 12개 에피소드씩 총 3개 시즌이 제작될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language@

MBC 새 월화드라마 '야경꾼일지' 포스터(사진 위) tvN 새 일요드라마 '삼총사' 예고편(아래). /MBC, CJ E&M

할배·누나 이어 청춘도 떠난다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tvN '꽃보다 청춘'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적, 유희열, 윤상, 유연석, 손호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 E&M

나영석 PD 마지막 여행 시리즈 '꽃보다 청춘' 방송

여행 버라이어티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나영석 PD가 tvN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에 이어 '꽃보다 청춘'(이하 '꽃청춘')으로 돌아왔다.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꽃청춘' 제작발표회에는 출연진 유희열·윤상·이적·손호준·유연석, 연출진 나영석 PD·신효정 PD 등이 참석했다.

'꽃청춘'은 앞선 시즌과 달리 짐꾼이 없으며 페루와 라오스 두 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페루는 평균 연령 40대의 유희열·윤상·이적이, 라오스는 평균 연령 20대 유연석·손호준·바로가 여행한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나 PD는 "'꽃청춘'이 '꽃보다'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청춘'이라는 소재를 쓰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꽃보다' 시리즈는 할배·누나·청춘 이 세 가지를 번갈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대 페루 팀과 20대 라오스 팀으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나 PD는 "20대 젊은이만이 진정한 청춘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며 "신체적 나이를 떠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0대 팀도 꾸렸다. '꽃청춘'을 통해 20대의 풋풋함과 40대의 노련함과 또 그 안에 숨어있는 순수한 열정 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20년 우정을 자랑하는 페루 팀은 이날 제작발표회서 잠임없이 농담을 주고 받으며 분위기를 달궜다.

유희열은 20대 라오스 팀에게 라이벌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희열은 "라오스 팀의 손호준·유연석·바로가 상의를 탈의한 채로 물 안에 있는 사진을 봤다"며 "(세 사람의) 근육이 커서 징그러웠다. 그에 비해 페루팀의 몸은 귀엽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적은 "라오스 팀과 비교했을 때 비주얼 면에선 꼴찌"라며 "저쪽이 화보면 우리는 거지같다"라고 말했다.

'응답하라 1994'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유연석·손호준·바로는 젊은이의 풋풋한 예능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유연석과 손호준은 라오스에서 맞춘 우정팔찌를 차고 등장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꽃청춘'은 다음달 1일 오후 9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김민기자 kimskim@metroseoul.co.kr

'군도' 개봉 5일 만에 300만 돌파

압도적 흥행… '명량'과 접전 예고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이하 '군도', 감독 윤종빈)가 개봉 5일 만에 전국 300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했다. 오는 30일 개봉을 앞둔 '명량'(감독 김한민)은 예매율 1위를 달리며 '군도'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군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주말 3일 동안 총 211만4238명의 관객이 들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309만을 넘어섰다. 올해 최고 흥행 성적을 기록한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보다도 빠른 속도다.

'군도'의 흥행은 일찌감치 예상된 결과였다. 하정우·강동원의 만남,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의 윤종빈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올 여름 기대작으로 손꼽혔다. 개봉 직전 언론시사회를 통해 엇갈린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개봉 시기를 잘 잡아 여름 극장가 장악에 성공했다.

본격적인 흥행 대결은 이번 주부터다. 최민식·류승룡 주연의 '명량'이 오는 30일 개봉하기 때문이다. '명량'은 28일 오전 기준으로 '군도'보다 높은 35.2%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두 작품의 흥행 대결로 주말 극장가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병호기자
solarsn@

영화 '군도'에서 악역 조윤을 연기한 배우 강동원

배한성·호란·안영미·남규리 '나도 영화감독'

올레 스마트폰영화제 연출 도전

성우 배한성, 가수 호란, 개그우먼 안영미, 배우 남규리가 제4회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의 멘토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감독에 도전한다.

멘토스쿨은 현직감독과 스타가 멘토와 멘티로 연결돼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의 더빙 프로그램이다.

배한성은 이무영 감독과 함께 영화 제작에 나선다. 아들 배민수 씨도 조감독으로 참여한다. 그는 "아들과 함께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니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호란은 지난 2011년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에서 단편영화를 연출했으며 2012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공식 트레일러도 연출했다. 그는 "단편영화 연출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재미를 느끼던 중 봉만대 감독님의 제안으로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안영미는 그 동안 과감한 개그를 선보여온 만큼 영화에서도 독특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규리는 임필성 감독과의 인연으로 '멘토스쿨'에 참여한다. 그는 "연기를 시작할 때만큼이나 떨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한성, 호란, 안영미, 남규리가 연출한 영화들은 오는 9월 15일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리는 제4회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 개막식에서 공개된다. /정병호기자

배한성·안영미·호란·남규리(왼쪽부터)

문가영 스크린 첫 주연

'아일랜드'서 유령 역… 성숙한 연기 예고

신예 배우 문가영(사진)이 '아일랜드: 시간의 섬'(감독 박진성)으로 스크린 첫 주연 신고식을 치른다.

'아일랜드'는 한 순간에 가족을 잃은 뒤 삶의 의미를 상실한 남자가 오래된 양옥집으로 이사온 뒤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아가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다.

문가영은 의문의 사고로 기억의 일부를 잃어버린 연주 역을 맡았다. 수십 년 동안 무언가를 찾기 위해 집안을 떠도는 미스터리한 유령으로 등장해 깊고 성숙해진 연기를 선보인다.

문가영은 엠넷 드라마 '미미'에서 순수한 여고생 미미 역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영화 '디 엠븐: 예고 살인'에서는 강렬하고 섬세한 연기를 선보였다.

한 영화 관계자는 "문가영은 어린 나이에도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쌓았다. 탄탄한 연기력이 장점으로 청순하고 신비로운 외모까지 더해져 앞으로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일랜드'는 지난 21일 크랭크업했으며 올 하반기 중 개봉 예정이다. /정병호기자

류현진 숙적 SF 상대 시즌 12승 성공

커쇼·그레인키와 다승 공동 2위…亞 투수 최다승 도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숙적 샌프란시스코(SF) 자이언츠를 상대로 시즌 12승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6안타(1홈런)와 볼넷 하나를 내주고 3실점(3자책)으로 막아 다저스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류현진은 103개의 공을 던졌고 이중 스트라이크는 65개였다. 삼진은 7개를 보태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인 지난해(147개)에 이어 2년 연속 세자릿수 탈삼진(105개)을 작성했다.

시즌 15번째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에도 성공했다. 후반기 첫 등판서 시즌 11승(5패)을 달성하고 2연승을 내달린 류현진은 후반기 두 번째 출전 경기에서 승리하며 3연승을 이어갔다. 다만 시즌 평균자책점은 3.39에서 3.44로 약간 나빠졌다.

잭 그레인키와 클레이턴 커쇼의 연승으로 선두 자리를 탈환한 다저스는 이날 류현진의 승리로 샌프란시스코와의 격차를 1게임 반으로 벌렸다. 류현진은 그레인키, 커쇼와 나란히 12승 투수 대열에 합류한 것은 물론 내셔널리그 다승 부문 공동 2위까지 도약했다.

이로써 류현진의 다음 목표는 아시아 투수 메이저리그 최다승 도전이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8~9월 10경기에서 5승3패를 추가하며 최종 성적 14승8패로 2013시즌을 마쳤다.

그러나 올 시즌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10경기에서 6승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류현진은 18승을 기록한다.

이는 박찬호(41·은퇴)가 2000년 다저스에서 작성한 한국인 투수 한 시즌 최다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적이다. 거기서 1승만 더하면 '대만 특급' 왕젠민(34·시카고 화이트삭스)이 2006년 뉴욕 양키스에서 세운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인 19승과 동률이 된다. 57경기를 남긴 다저스의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류현진은 이번 시즌에 11차례 이상 더 등판할 가능성이 커 19승도 그리 먼 목표는 아니다.

류현진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아시아 두수 최다승뿐만 아니라 각종 기록 달성과 순위 다툼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정비오기자 ysw@metroseoul.co.kr

누이좋고 매부좋은 야구대표 선발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illegible] 최종명단 24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감안한 포석이 보인다. 우선 모든 구단을 모두 배려했다. 1위 삼성부터 꼴찌 한화, 10구단 kt까지 포함했다. 한화는 투수 이태양이 기쁨을 누렸고 kt 특별지명을 받은 동의대 우완 투수 홍성무도 뽑혔다.

군 미필자 13명은 24명의 대표팀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병역 문제가 거론되지만 류중일 감독은 "리그 최고의 성적을 올린 선수들"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물론 속마음은 미필자들의 꿈을 단치는 투혼을 기대하고 있다.

최대 이변은 2루수 서건창(넥센)의 탈락과 투수 유원상(LG)의 발탁이다. 2루수는 두산 오재원, KIA 안치홍, 한화 정근우, NC 박민우 등의 격전지였다. 2명을 뽑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재원(두산) 단 한 명만 살아남았다.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유원상도 롱 릴리프가 가능한 이유로 낙점 받았다.

SK 포수 이재원의 낙점도 의외였다. 타격은 출중하지만 포수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 포수는 강민호 1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재원의 타격을 중용하겠다는 의지다. 공격력을 중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강 삼성 선수들이 의외로 적었다. 불펜 차우찬과 안지만, 내야수 김상수, 외야수 임창용을 택했다. 외야수 최형우와 3루수 박석민은 부상을 이유로 제외됐다. 타 구단을 배려하면서도 역시 모든 삼성 전력 누수를 막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라인업이 금메달까지 낚을지 지켜보자.

/OSEN 야구전문기자

'진짜 사나이' 금메달을 부탁해

AG 야구대표 병역 미필자 대거 발탁 동기부여 극대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엔트리가 군 미필자 중심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대회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KBA)는 28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대표팀 사령탑인 류중일 삼성 감독, 김인식 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한 기술위원회를 열고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 23명(투수 10명, 포수 2명, 야수 11명)을 결정했다.

금메달 획득시 군 면제 혜택이 주어져 최종 명단에 선수, 구단·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종 명단에는 병역 의무를 해결하지 못한 선수 대부분이 선발됐다. 삼성의 차우찬과 김상수, 롯데의 손아섭과 황재균, 두산의 오재원, 넥센의 한현희와 김민성, NC의 나성범과 이재학, 한화의 이태양, LG의 유원상, KIA의 나지완 등은 2차에 이어 최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마추어 투수 홍성무(동의대)까지 포함하면 24명 중 13명이 병역 미필자다. 2차에 이름을 올렸다가 최종 명단에서 빠진 병역 미필자는 두산의 투수 유희관뿐이다.

야구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올해 인천 아시안게임은 병역을 해결할 좋은 기회다. 대표팀은 금메달을 향한 동기 부여를 극대화했다.

4년 전 광저우에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를 앞세워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야구 대표팀은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류중일 감독은 "무조건 금메달이 목표"라며 "일본, 대만에 이어 중국도 실력이 많이 향상돼 상대팀을 많이 경계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순호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 ★은 병역 미필자(13명)

△투수(11명)

▲우완(4명) = 안지만(삼성) ★유원상(LG) ★이태양(한화) ★홍성무(동의대)

▲좌완(4명) = ★차우찬(삼성) 봉중근(LG) 김광현(SK) 양현종(KIA)

▲사이드암(1명) = ★이재학(NC)

▲언더핸드(2명) = 임창용(삼성) ★한현희(넥센)

△포수(2명) = 강민호(롯데) 이재원(SK)

△내야수(7명)

▲1루수(1명) = 박병호(넥센)

▲2루수(1명) = ★오재원(두산)

▲3루수(2명) = ★황재균(롯데) ★김민성(넥센)

▲유격수(2명) = 강정호(넥센) ★김상수(삼성)

△외야수(5명) = 김현수, 민병헌(이상 두산) ★손아섭(롯데) ★나성범(NC) ★나지완(KIA)

프로야구 전적 28일

■잠실

롯데	102	000	000	3
LG	000	000	500	5

■문학

넥센	002	440	000	10
SK	700	000	100	8

"대표팀 감독 국내외 15명씩 검토"

이용수 위원장 경험·리더십·인성 고려 9월 선임

이용수(사진) 대한축구협회 신임 기술위원장이 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 조건으로 '경험, 리더십, 인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28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시작될 대표팀의 평가전에 대비한 감독 선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감독의 첫 번째 조건으로 경험을 내세웠다. 월드컵이나 프로클럽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인물을 뽑겠다는 것이다.

리더십과 인성도 성적만큼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한국 축구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을 살리려면 선수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은 물론 인성도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국인 감독은 선수 파악에 긴 시간이 필요 없다는 점, "외국인 감독은 세계 축구의 변화에 맞춰 우리 선수들의 장점을 세계무대에 표출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각각 장점으로 내세웠다. 내국인 15명과 외국인 15명의 감독 후보를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감독의 몸값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4강으로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은 당시로는 파격적인 100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히딩크 감독의 뒤를 이은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이 70만 달러를 받았고,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과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각각 65만 달러와 100만 달러가량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무조건 많은 돈을 들여서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협회는 외국인 지도자를 영입하면 100만 달러 수준을 상한선으로 놓고 볼 것으로 전해졌다.

/유순호기자 suno@